

## 8월 비와이 LA 온다, 'Movement IX'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호응을 받는 BewhY의 콘서트 'Movement IX'가 LA 다운타운 노보 극장에서 8월 17일(토) 오후 7시에 개최된다. ©Lovingworship

### BewhY 단독 공연, 8월 17일(토) 7시 노보극장(The Novo)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에 따라 내 날을 구르며 죽을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쫓아봐” -The Time Goes On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보이는 것의 증거니까” -Day Day  
 “산 중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위해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리” -Believe! Forever Forever  
 여과되지 않은 비속어가 난무한 힙합 배틀에서 한 청년이 나와 랩을 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나온다.

자신의 신앙을 전면에 내세우며 랩 배틀을 통해 쇼미더머니 시즌 5에서 우승을 거머쥔 래퍼 비와이(BewhY, 본명: 이병운), 신기한 것은 그의 음악에 많은 이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감탄하고, 호응한다는 점이다.  
 “귀에 제대로 때려 박는 랩”, “한 노래 안에서 이처럼 복잡한 흐름을 전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모른다.” “종교적인 색채를 꽤 강하게 담았는데 거부감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개 멋있네”, “이처럼 완벽한 곡을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다”, “랩이 이렇게 송고한 장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곡”, “아... 곡 하나에 변화를 몇 개나 준 거야... 질릴 틈이 없네”, “우리나라 랩의 모든 것을 담은 곡 같다”

성경 구절, 자신의 신앙을 담아 랩을 하는데, 비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을 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실력에 압도된다. 러빙워십은 ‘괴물 래퍼’로 불리는 청년의 속도감 있는 랩에서 이 시대 청년들과 복음의 접점을 찾아냈다.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은 래퍼 비와이를 초청해 그의 단독 콘서트를 주최한다. 8월 17일(토) 저녁 7시 LA 다운타운 노보극장에서 있을 그의 공연의 주제는 ‘Movement IX’이다.  
 이번 비와이 콘서트는 지난 해 제이머스와 연합공연, ‘예수아(Yeshua)’에 담았던 러빙워십의 비전의 연장선에서 열린다. 세속화의 물결로, 힘을 잃은 크리스천 청년들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것이 ‘예수아’ 공연의 비전이었다면, 이번 공연에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토마스 맹 기자 →3면에서 계속

### PCUSA, 성소수자 포용 정책 확대 검토

미국장로교(PCUSA)가 차별 금지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PCUSA는 현행 차별 금지 정책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올림피아 헌장’으로도 알려진 POL-01 안건은 PCUSA의 차별 금지 정책을 담은 F-1.0403 법안을 개정하여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적 안수 기준을 다룬 G-2.0104b 조항도 수정하여, 안수 받은 목회자들이 이 차별 금지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F-1.0403 법안은 “하나

님께서는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장애, 지리 또는 신학적 신념과 관계없이 세례를 통해 사람들을 연합시키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PCUSA는 회원 교회와 모든 교인에게 예배, 다스림 및 새로운 삶에 대한 온전한 참여와 대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안건은 최근 정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7월 초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될 제226회 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건의 공식 근거에 따르면, 이 제안은 워싱턴주 올림피아장로교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이들이 안수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남윤식 기자 → 2면에서 계속

### 창립 37주년 한빛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부여나팍 위치한 한빛교회(고광훈 목사)는 6월 30일(주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창립 37주년 기념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림새로 출발을 알렸다.  
 이날 김영근 치리목사(샘솟는 교회 담임)의 집례로 드려진 37주년 기념예배에서 황규동 목사(지방회 서기 성문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집례자가 창세기 29장 31-32절을 봉독한 후, 박병주 목사(지방회 산소망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제2부 순서로 진행된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박병주 목사의 서약, 치리권 부여, 공포에 이어 담임 목사로 취임한 고광훈 목사가 답사했다.  
 제3부 축하의 시간에는 기념패 증정(고광훈 목사), 축사(신동수 목사,

전 지방회장 로고스교회 담임), 권면(이종일 목사, 심리부장 방주교회 담임), 광고(김신용 장로), 축도(최경환 목사, 전총회장 시온교회 원로 목사)가 있었으며, 제4부 친교시간을 위해 박성삼 목사(전총회장 링크사이어한인교회 원로목사)가 기도했다. 주디 한 기자 → 3면에서 계속

부여나팍에 위치한 한빛교회(고광훈 목사)가 창립 37주년을 맞았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고광훈 담임목사, 네 번째가 차광일 원로목사. ©기독일보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미주탈북민대회 열린다

### 7월 12일 오후 3시 가든 스위트 호텔 탈북민 출신 티모시 조 강연 예정

대한민국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제정됐다. 이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기념식과 관련 행사들을 할 수 있다.

이에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가 오는 7월 12일(금) 오후 3시에 가든 스위트호텔에서 AKUS 한미연합회, 오렌지카운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 AKUS 한미연합회 LA의 남북통일분과위원회, NKIA 탈북민 선교회, 미주 북한인권 통일연대가 주관해 열린다.

이 행사에는 알래스카, 유타, 텍사스, 워싱턴 주의 시애틀과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40여 명의 탈북민이 모여 진행되며,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시의원 도전을 하

고 있는 티모시 조가 강사로 나선다. 또 탈북민 자녀 장학위원회(이사장 조선환)에서 준비한 탈북 자녀들에게 장학금 수여식도 있다. 대상은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자녀로서 10여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이 해당되며, 중학생은 500달러, 고등학생 이상은 1000달러가 지원된다.

주최 측은 후원자 모집을 하고 있으며, 후원자의 이름으로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다. 이는 후원자와 수혜자간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행사는 탈북민이 주가 되어 진행이 되며, 그들의 장기자랑 시간도 마련된다.

더불어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주최측은 3박 4일 동안 여러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탈북민 복송 반대 집회를 열며, 오후 3시에 미주 탈북민대회, 13일 오전 10시에 대한장사사 남골당에서 탈북을 한 후 고인이 된 이들을 위한 추모예배, 같은 날 오후에는 탈북민 자녀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한 후 우정의 종각으로 피크닉을 갈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후 일정을 마치게 된다.

NKIA 탈북민 선교회 김영구 목사는 "탈북의 역사를 보면 1996년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이 됐다. 그동안 탈북민들이 음지에 있었다고 본다. 그들에게 자신감을 줄수 있는 티모시 조가 온다는 것이 탈북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미주 북한인권통일 연대 현춘삼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탈북민들에게 또 다른 815의 광복절이라 할수 있다. 이 날이 제정이 되어 탈북민들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가 오는 7월 12일(금) 오후 3시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다. 왼쪽부터 예수로교회 박세현 목사, 조선환 이사장(한미연합회 남가주), NKIA 탈북민 선교회 김영구 목사, 미주 북한인권통일 연대 현춘삼 사무총장. ©기독교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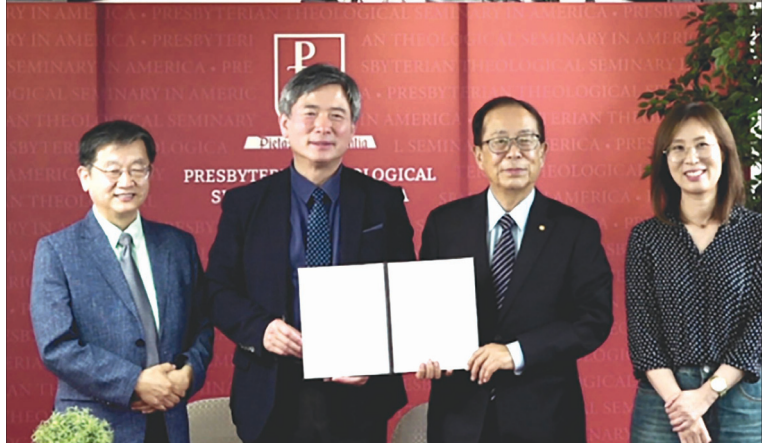
이 한국사회 일원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문의: 310-404-6219(김영구 목사) 토마스 맹 기자

## 프라임 리더십, 장신대 평대원과 MOU 체결

지난 달 27일(목) 프라임 리더십 인스티튜트(Prime Leadership Institute, PLI, 대표: 이상명, 이사장 김재권)와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평신도교육대학원(이사장: 최상현, 원장: 손달익) 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프라임 리더십 인스티튜트는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평신도교육대학원과 1) 21세기 맞는 평신도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동연구 2) 평신도 교육과정 중 시니어 사역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관계 구축 3) 평신도 교육 전문가 교류 및 자문 4) 평신도 시니어 사역 분야 전문 도서 공동출판 5) 고령화 사회 및 다문화 환경에서 사역할 평신도 리더십 공동 개발 등의 분야를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프라임 리더십 인스티튜트 대표로 있는 이상명 목사는 "이 시대의 교회가 고민해야 될 영역은 교회에 있는 평신도 그 가운데 시니어임을 밝히며 교회가 평신도 시니어를 훈련, 교육시켜 목회나 선교 등 다양한 분야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여 중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에서 이 분야를 담당했던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평신도교육



프라임 리더십 인스티튜트와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업무협약 체결식. ©기독교일보

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PLI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

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총장 이상명 박사)와 미주성서화분부(대표 회장 송정명 목사)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기관이다. 김민선 기자

## 목회 코칭 온라인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이 주최하는 '목회 코칭 온라인 세미나'가 오는 7월 19일(금) 오후 3시부터 4:30분까지(미 서부시간), 7월 26일(금) 오후 3시부터 4:30분까지(미 서부시간)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세미나(7/19)에선 <목회 커뮤니케이션 이해, 효과적인 코칭 대화법 적용>을 다루고, 19일에 열리는 2차 세미나(7/26)에선 <목회 코칭의 적용사례 및 워십, 강점코칭, 코칭 리더십 활용>을 다룬다.

강사는 월드미션대학교 겸임

교수인 윤재병 목사(더사랑교회 담임목사)이다. 윤 목사는 전 이랜드그룹 사목, 동서선교연구 개발원 코치, 국제 PCC 코치, 미국 궤멸강점인증코치, 온누리교회, 가정교회사역원등 다수의 목회자 목회 코칭 사역을 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학교 웹사이트(kr.wmu.edu/)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학은 2024년 가을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7월 12일(금) 오후 5시(서부시간)에 진행한다. (Zoom ID: 2133881000)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 PCUSA, 성소수자 명했다. 이들은 "이 제안의 핵심 부분이 교단의 신학적 다양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서명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G-2.0104b의 개정안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은 '양심의 자유'라는 우리의 핵심 개혁주의 교리와 크게 상충되는 안수 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많은 신실하고 헌신적인 장로, 집사, 교사들을 신념에 따른 봉사에서 실격시키고 배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5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 제안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



메디케어 전문 Agent

#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촬영한 애니문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의료진입니다.



# “러빙’의 과제? 문화로 청년들 파고 드는 것”

→ 1면 기사(8월 비와이 LA 온다...)에 이어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암울한 기사들이 연일 매체를 통해 쏟아지던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과제가 뭘까?’를 고민했던 러빙워십은, ‘문화를 통해 젊은이들을 파고들어 가는 것, 즉 문화선교에서 답을 찾았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제이어스와 연합공연이었다.

그러나 다운타운 노보 극장, 애너하임에 있는 주류 극장에서 제이어스와 연합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100명도 채 안 올 거다” 등,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사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그 결과 4천 5백 석이 가득 차는 부흥의 조짐을 목격했다.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 놓았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성공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 청년뿐 아니라, 비기독교인 청년에게도 다가가기 위해 비와이 콘서트를 계획하게 됐다.’

러빙워십의 조애나 간사(총무)가 이번 비와이 콘서트의 형식과 구성에 대해 나누었다.

“비와이는 래퍼이기 때문에 디



러빙워십의 스텝들이 이번 공연을 앞두고 공연의 목적과 비전을 나누고 공연의 구성과 진행에 대해서 설명했다. 왼쪽부터 제이 리 간사(언론 홍보 담당) 이용주 선교사(멀티 미디어 방송 담당), 재키 정 간사(행정, 대외 관계), 김낙영 간사(총괄 디렉터), 조애나 간사(총무). ©기독일보

제이와 비와이가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깃들여진 콘서트가 될 것이다. 힙합을 통해 복음을 멋지게 전하고자 하는 래퍼이기에, 그가 쓴 모든 가사에 말씀이 녹아져 있다. 단독 공연이기 때문에 무대 구성에 신경을 썼다. 음향과 조명은 Troy Choi(한국명: 최경태, 라라랜드 월드투어 쇼 감독)가 맡아주실 것이다.”

러빙워십의 스텝들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이번 비와이 콘서트를 알리고 직접 뛰며, 교회와 단체들을 방문해 청년 목사님들에

게 비전을 나누고, 콘서트에 대해 알리느라 분주하다.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CGV에서 콘서트 광고도 내보내고 있다.

러빙워십의 김낙영 간사(총괄 디렉터)는 비와이 공연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접점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은, 랩을 듣는데, 제가 많이 들은 구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의 음악을 들으며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을 거

라 생각했다.”

조애나 간사는, 비와이 음악이 지닌 독특성,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힙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이미지가 많은데, 비와이는 ‘힙합으로 최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주관이 뚜렷하다. 그래서 가사에 말씀을 녹여 넣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여러 요소들이 멋지게 어우러지다 보니 모두 열광한다. 저도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힙합 가수가 있네, 어떨

게 말씀을 가사에 넣을 생각을 했지, 진짜 특이하고 진짜 멋있다’라고 감탄했다.”

이들의 또다른 고민은 이 공연이 또 하나의 단발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찾은 비기독교인 청년들이 교회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협력하는 8개의 교회(은혜한인교회, 사랑의교회, 베델교회, ANC 온누리교회, LA 온누리교회, 나성영락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중현선교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각 지역 교회로 연결할까’까지 고민하고 있다.”

러빙워십의 ‘예수 운동’을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12월에는 온 가족이 복음에 대해 나누고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재키 정 간사(홍보, 소셜 미디어 담당)는 “사실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콘서트를 알리기 위해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청년 목사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며, 러빙워십이 문화선교를 계속해 나가는 이유에 대해 나눴다.

김낙영 간사는, 이 사역의 목적은 성령의 불을 ‘점화’하는 것이라며, 이 콘서트가 예수 운동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콘서트 일정: 8/17(토) 7pm LA THE NOVO 극장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성결이 소홀해진 시대, 성결 위해 분투하는 교회

→ 1면 기사(창립 37주년 한빛교회...)에 이어서 창립 기념예배에 앞서, 이날 “한빛성결교회”라는 제목으로 드린 주일예배에서 고광훈 목사는 사사기 16장 18~31절을 본문으로, 한빛교회가 나아가 방향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삼손의 삶에서 세가지 교훈을 추출했다.

“첫 번째, 삼손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다. 사사기 16: 2~3절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종하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났다. 무려 네 번이나 밤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한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다. 빛의 자녀가 밤의 여인을 만나 깊은 밤에 빠져 있다. 삼손은 두 눈이 빠져서 깊은 암흑을 체험하게 된다. 빛의 자녀가 어둠에 다니면 깊은 어둠에



한빛성결교회(고광훈 목사)가 6월 30일(주일) 오후 4시에 창립 3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빠질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한빛교회이다. 한빛 교회가 빛 되신 주님 잘 따라가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그는 “두 번째, 삼손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삼손의 스토리는 이방 여인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

남 중심으로 스토리가 써져야 한다”며, 한빛 교회의 이름 ‘성결’에 담긴 의미를 강조했다.

“삼손의 삶을 여러 각도에서 봐도, 그의 삶에 어떤 경건도, 거룩함도, 성화의 과정도 아무 것도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결을 잃

어버리면 우리도 삼손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아무런 영적인 힘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한빛 교회는 ‘한빛 성결 교회’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결이 소홀해지고 있는 시대이다.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고자 더 뉘그러치며 나아가야 한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로 눈이 뿔히고 눈썹에 포박되어 감옥에서 멧돌을 돌리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그를 통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사사기 16:38)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빛이라는 이름도 중요하고 성결이란 이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이름이다. 교회는 건물이 있고 간판을 세웠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곳이 교회이다. 사대 교회를 향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하신다. 유럽의 교회가 교회가 술집, 나이트클럽,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게 되었는데, 유럽에서 35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셨다. 앞으로의 시대는 성령 충만한 교회만 남게 될 것이다.”

3대 담임으로 취임한 고광훈 목사는 아주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시온연합감리교회에서 교육 목사, 한빛교회에서 부담임으로 섬겼다. 한빛교회는 1987년 6월, 차광일 목사와 두 가정이 LA 동부 웨스트코비나 인근 나사렛교회를 빌려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부에나팍의 건물을 구입해 입당하며 새로운 부흥의 차원으로 들어섰다.



## BewhY Concert in LA with Loving Worship

---

**Tickets —**  
axs.com

**Ticket 문의 —**  
213-357-1565  
\$120 | \$100 | \$80

**협력 기관:**  
기독일보  
미주 중앙일보  
미주 CBS방송

**협력 교회:**  
CGN TV  
미주 CTS TV  
YTV AMERICA  
LA 온누리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중현선교교회  
베델교회  
ANC 온누리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새생명비전교회



# “신앙을 견고히 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

## 회복기도의집 박태욱 목사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의 시대에 바쁜 일상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침과 휴식이다. 하지만 수많은 일들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에게 늘 공급해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이 크리스천들이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한 이후 열려진 성령의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일 것이다. 엘에이에서 '회복기도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욱 목사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전하기에 힘쓰고 있다. 그의 사역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후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예배와 기도 통해 영적인 힘 키운다

영적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럴 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피하게 된다. 우리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영적 원리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피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울 때,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불면증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걱정이 들어올 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낙심과 근심을 쫓아내지 못할 때 약한 영이 그 안에 머무르게 된다.



박태욱 목사. 기독교일보 사무실의 인터뷰 자리에서 그는 우리 신앙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일보

###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약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불면증이나 근심이 있을 때 맞설 수 있다. 대적 기도를 통해 마음의 확신이 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승리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회복기도 의집에서 훈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의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30여년 전부터 엘에이 맥아더 파크에서 전도했다. 지금은 히스패닉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

### 영적인 싸움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

마귀와 싸우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배소서 6장 13절에 나와있는 것 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다. 마귀 대적, 전도, 기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과정인데 초점을 여기에 맞췄다.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의식이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예배와 찬양이 있다. 단단계 더 올라가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계속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 복음적으로 살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가져야

오렌지카운티에서 있다가 엘에이에 온지 얼마 안됐다.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주일 3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영적 원리를 아는 것이다. 치유와 축사 사역을 가르쳐야 한다.

처음 2년 동안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콜링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이후에 외치기 시작했다. 가든그로브에서 3년 동안 팀을 구성해 전도하러 다녔고, 전도하다가 어떤 이는 발작이 일어나서 눈이 돌아갔는데 결국 치유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등 많은 이들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은 전도보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에 힘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주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려고 한다.

집회: 매주 금 오후 6시 30분, 주일 3시 30분

주소: 2426 W. 8TH ST. #221 LA, CA 90057

문의: 213-500-0480(박태욱 목사).

## 센터클리닉, 가든그로브 마당잔치 연다

시니어들을 위한 케어로 남가주에서 유일한 센터메디컬그룹이 가든그로브와 주변 지역의 시니어들을 위해 '마당 잔치'를 연다고 밝혔다. 이 마당 잔치는 작은 한인축제 같은 잔치로서, 게임부스와 다양한 체험, 무료 진료와 무료 식사, 쏟아지는 경품들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가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 직영클리닉, 센터메디컬클리닉 주차장에서 열린다.

이 마당 잔치는 가든그로브와 주변 지역(가든그로브, 산타야나, 스탠턴, 웨스트민스터)의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라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예약도 필요 없다.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먼저 소정의 선물이 들어있는 구디백과 식사권을 받게 되며, 즐거운 게임을 부스를 참여하게 된다. 그 외에도 무료 진료부스, 영상 시청, 룰렛 돌리기 등 다양한 부스를 지나게 되는데, 부스를 참여할 때마다 참여상품과 우승상품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따뜻한 한식 무료 식사와 무료 미용 서비스까지 있으니 풍성한 즐길 거리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무료 진료 부스에서는 가든그로브지점의 주치의 임유일 내과 전문의가 건강에 관한 질문을 답변해주고 혈압 등 간단한 진료를 봐주게 된다.

- ▶마당잔치 행사 문의 (714) 583 - 8569
- ▶마당잔치 날짜: 7월18일(목) 10am-1pm
-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 주차장 (12372 Garden Grove Bl Unit B Garden Grove)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이인규 고문변호사: 정찬웅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T.(213) 739 - 0403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5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떠나는 여행

# #1일무료관광

이번에는 +, 짝꿍과 함께 떠나는 무료 여행!

참여  
대상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이라면 OK!

센터메디컬그룹 회원의 짝꿍이라면 OK!

(65세 이상 시니어 ONLY!)

오렌지카운티 탄생지로~

**OC 출발** →

출발장소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관광장소

📍 미션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7월 30일 (화) 9am**



캘리포니아의 유럽으로~

← **LA 출발** 🚗

출발장소

**삼호관광**

258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관광장소

📍 게티 빌라

**7월 31일 (수) 9am**



총 2회 중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점심이 무료 제공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ID카드 지참하여 8:00am까지 출발장으로 와주세요.

**신청문의**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888) 847 - 3098**

**센터메디컬그룹**



# 영 북음주의연맹 가입 회원, 지난해 5천 명 이상 증가

## 한국선교연구원, 7월 세계 선교 기도 제목 공유

전 세계 육지의 45%가 사막화의 영향 받고 있어

6월 17일에 열린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티아우(Ibrahim Thiaw) 사무총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막화가 일어난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육지 표면의 45%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매년 1억 헥타르(ha)의 토지가 황폐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지난해 분쟁 지역 내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 2,500건 이상 발생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4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NGO)들의 연합체인 Safeguarding Health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들의 살해나 납치, 또는 의료 시설에 대한 폭격이나 약탈 등의 공격이 2023년 한 해 동안 2,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약 25%가 증가한 수치이다.

### 글로벌 구호단체, 현지 파트너십 강화하고 있어

2020년 에티오피아 티그레이(Tigray)에서 내전이 발생한 이후 에티오피아인 기르마(Tsega Girma)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하루에 24,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내전 기간 기금이 바닥났지만 몇몇 글로벌 구호단체들이 이 단체를 파트너로 여기고 사역을 도운 덕분에 구호가 지속될 수 있었다.

### 지난 5년 동안 분쟁에 의한 국내실향민 2,260만 명 증가해

전 세계에서 분쟁으로 인한 국내실향민(IDP) 수가 7,59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26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국내실향민감시센터(IDM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1,69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단이 910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 <미주> 미국: 젊은 여성들, 종교를 떠나는 비율 높아지고 있어

지난 4월에 발표된 미국생활조사센터(SCAL)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에서 Z세대로 젊어질수록 종교를 떠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세대에서 종교를 떠난 남녀의 비율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남성이 57%, 여성이 43%였고, X세대는 남성이 55%, 여성이

45%였다.

### 파나마: 해수면 상승 우려해 섬 주민 300가구 본토로 이주시켜

6월 3일,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북부 해안에서 약 1,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디서그뎀(Gardi Sugdub) 섬에 거주하던 300가구, 천여 명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해발 1m 밖에 되지 않는 이 섬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침수 피해에 시달려 왔고, 전문가들은 이 섬이 2100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을 예상했다.

###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외국인, 남미인, 원주민 간의 선교 협력

브라질 출신의 파리아(Enoque Ozório de Faria) 선교사는 2024년 4월 선교잡지 EMQ에 기고하면서, 아마존 지역에서 원주민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세계의물결운동(Movimento Tres Olas, MTO)에 대해 소개했다. 이 운동은 2009년에 조직된 아마존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교사, 남미인 목회자, 원주민 사역자들 간의 협력체를 말한다.

### 북중미: 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능성 2000년보다 4배 높아져

6월 20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인 세계기상기여조직(World Weather Attribution)은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를 비롯한 북중미에서 극심한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2000년보다 4배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최근 열돔(heat dome)으로 불리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고기압 아래 놓이면서 뜨거운 공기가 지표면 가까이에 갇혔기 때문에 평년과 다른 폭염을 겪고 있다.

### 미국: 개신교 목사 77%, 인공지능 선용 가능하다고 생각해

지난 2월 실시한 바나 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32%는 인공지능(AI)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하는 반면 33%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기독교인들도 30%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34%는 AI의 발달이 무섭다고 생각했다. 또 AI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25%는 동시에 우려스럽다고 생각했고, AI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25%도 한편으로는 흥미를 가지고 사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아시아>

### 한국: 침체된 한국교회, 도시 변화의 현상 이해해야



영국 런던 전경. ©Unsplash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김에녹(Enoch J. Kim) 교수는 국제선교연구회보(IBMR) 2024년 4월호에 한국 교회의 침체 원인을 도시화와 연결해 분석하면서 도시 변화의 현상을 이해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24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지난 5월에 발표된 미국국제종교자유 2024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되고 있는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간주하면서 정치적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미등록교회 2곳, 불법 선교 활동으로 기소돼

지난 3월과 4월, 카자흐스탄 경찰이 남부 슈(Shu)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개신교 교회 2곳을 급습해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목사를 기소하고 벌금형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례교회협의회(BCC)는 4월 말 성명을 내고 이곳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파키스탄: 편자브 법원, 여성의 최소 결혼 연령 18세로 높여

파키스탄의 신드(Sindh)주에 이어 두 번째로 편자브주에서도 여성의 최소 결혼 연령이 18세로 높아졌다. 지난 4월, 라호르 고등법원은 최저 결혼 연령에 있어 여성 16세, 남성 18세로 규정하고 있던 1929년 아동결혼제한법 조항을 폐지했다.

### 파키스탄: 기독교인, 신분증상의 종교 변경 청원 기각당해

지난 5월, 파키스탄 법원은 고등주에게 속하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바뀌었던 청년이 제기한 종교 변경 청원을 기각했다.

24세의 마시(Sufyan Masih)는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기독교인으로 자랐다. 2018년부터 마시는 무슬림인 알리(Asif Ali)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 그의 부모는 불법으로 감금된 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 인도: 총선 후 연립 내각 구성으로 기존 정책 변화 가능성 생겨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6월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연립 내각을 구성했다. 연립 내각 구성으로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은 두 개의 지역 정당의 힘을 빌려 구성하게 된 연립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이고, 노동 개혁과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 정당들의 소수의 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베트남: 기독교인, 자신의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높게 생각해

베트남의 성인 2,255명을 대상으로 한 퓨리서치(Pew Research)의 설문 결과, 베트남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들에 비해 종교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발표된 조사에서 베트남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한 가를 묻는 질문에 5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 미얀마: 군부, 난민 캠프의 로힝아 족까지 징집하고 있어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연합군들에게 주도권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있는 로힝아족까지 징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ISS)는미얀마 라카인(Rakhine)주에서 최대 5천 명의 로힝아족이 징집된 것으로 보인하면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s Bazar) 외곽의 난민촌에서도 이들

이 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기독교 여성단체, 고통받는 여성들의 회복 위해 힘써와 늘승리하는복음교회(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ECWA) 소속의 여성단체가 94년째 나이지리아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회복을 위해 힘써 오고 있다. 하우스어로 "기혼 여성의 친목"(zumunta mata)을 뜻하는 이 단체는 1930년 미앙고(Miango) 마을에서 한 여성이 출산 중 사망하면서부터 시작했다.

### 에티오피아: 양성평등 인식 높아졌지만 실질적 평등은 아직 멀어

범아프리카 연구네트워크인 Afrobarometer가 6월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에티오피아인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과 공직 분야에서 이러한 생각은 각각 73%, 83%로 조사되었고, 재산이나 상속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78%로 조사됐다.

### 남아공: 교회들이 착취당한 광부들의 법적 소송 돕고 있어

금과 다이아몬드 채굴로 유명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 산업이 쇠퇴하면서 광부들의 체불 임금과 장애 수당에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했던 광부들과 미망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만한 비용이 거의 없다.

### 소말리아: 400만 명의 국내실향민, 기후변화로 고통 가중돼

소말리아는 1991년 이후로 무장단체들 사이의 세력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때때로 연방 정부와 반군 간의 마찰이 격화되면서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내실향민(IDP)이 됐다.

### <유럽>

### 영국: 북음주의연맹 가입 회원, 지난해 5천 명 이상 늘어

최근 영국 북음주의연맹(United Kingdom's Evangelical Alliance)의 대표인 칼버(Gavin Calver) 목사는 2023년에 회원 수가 5천 명 이상 증가했고, 교회와 기관을 포함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가 23,00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챤리티투데이(CT)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영국 북음주의연맹이 인종적으로 더 다양해졌고 젊은 층의 가입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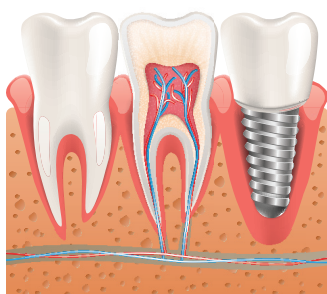
##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료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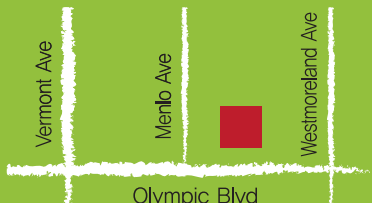


에스더 이원장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통증없이, 가뿐하게  
**걸어보자! 뛰어보자!**



예약접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의 신발!!**

기능성 건강신발  
**발명 특허 획득**  
2024.1.31

신체의 원리를 신발에 담았습니다!  
맨발 그 이상의 신발 -  
**직접 체험해 보세요!**

**신발 신은 후 체험 사례 ▶**

- 허리가 펴졌어요.
-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 발바닥 통증이 사라졌어요.
- 어깨 통증이 사라졌어요.
- 신발만 바꿨는데 무릎, 허리가 덜 아파요.
- 하루종일 서서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 엄마가 간신히 걸었는데 이젠 잘 걸어요.
- 스트로크로 지팡이 짚고 왔다가 이 신발 신고 지팡이 놓고 갑니다.



신은 순간 반응하는  
**인체의 신비**

신발은 발을 망가 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발은 신체의 근골격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You Tube **기적신발TV**

Google 검색 [www.jgpfootwear.store](http://www.jgpfootwear.store)

무료 체험  
예약 안내  
구입 문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옆

**(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04 LA, CA 90006



#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서사라 목사) 2024년 상반기 선교보고

##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일본 아카사카의 교회 방문해 집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거의 5년 만에 온 일본이었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산 선교회원들과 함께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땅을 밟았습니다. 일본 전체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고 이미 외국인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전보다 가난해져 있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 준비는 더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 선교에 이미 헌신하신 현지 목사님이 씨를 뿌리셨고 저희들은 가서 물을 주며 일본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2. 2024년 5월 4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실리통가라는 목사님 주도로 25년간 매달 인도네시아의 지역 도시를 돌며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서사라 목사는 이 기간 중에 초대를 받아 두 번의 설교를 전하고 3군데 지역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회교도가 있어 기독교인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보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의 기독교가 핍박이 센 만큼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

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의 세미나에 특히 남자와 아이들이 많은 것이 인도네시아 교회의 장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교회와 비교하니 부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실리통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초교파 세미나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봅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두 번에 걸친 서사라 목사의 간증과 설교는 이곳에서도 잘 받아들여져서 오는 10월 다시 서사라 목사만의 집회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3. 5월 9일부터 23일까지는 필리핀에서 세 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라우니온, 바기오, 광가시난의 지방 도시 세 곳과 마닐라의 빈민 지역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거리상으로 3~4시간 떨어진 지방 도시를 돌며 2박 3일의 목회자 세미나를 한 것이었습니다. 라우니온 지역에서는 35개의 교회를 개척한 엘마라는 여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의 150여 명이 모여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교회는 JESUS IS LORD 교단 소속으로 필리핀 최대 교단 소속교회로 참가한 35개 지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새로운 영적 충전과 도



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엘마 목사님은 교회 개척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집회가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는 소중한 집회라고 간증했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필리핀 선교 5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으로 한국 목사님을 초대하여 집회를 했다고 하니 한국과 필리핀 교회 간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가시난이란 지방 소도시의 교회 집회는 그곳 사람들이 난생 처음 한국 사람을 볼 정도로 지방이었으나 그곳에서도 많은 은혜가 임해 담임목사님이 한국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기오의 선교센터에서 열린 집회는 그곳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계속되는 정전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과 잘 협조해 이 세 군데의 집회를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준비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세 번의 집회를 준비하며 그들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은혜를 받고 세계선교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 필리핀의 젊은이들과 함께 각국의 목사님을 초청해 이곳에서 세계대회를 여는 비전을 또 주셨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너무 멀고 비싸고 비자 받기도 힘든데 이곳 필리핀이 세계선교의 중심이 될 여러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이번 필리핀 선교 기간에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빈민가 선교에서는 이곳의 젊은이들을 통해 영어로 된 자료들을 만들고 또한 세계선교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들

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 싸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많아 책 번역과 영상 제작을 필리핀에서 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4.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있었습니다. 내부의 근육 축으로 배가 임신부처럼 부어오른 사람이나 다리와 손 등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가난으로 인해 정말 절규하며 강단 앞으로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스라는 제2의 도시에는 마실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어 얇게 땅을 파서 나오는 소금물이나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물을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마실 수 없는 물을 먹는 고통을 받고 있어 현지의 여섯 곳을 직접 방문해 교회와 연결해 유지 관리를 하게 하고 우물 파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 계약하고 땅 밑으로 50m 이상을 파서 마



나이저리아에서 선교했습니다. 비행기로 편도 30시간 즉 왕복 60시간 타야 하는 나이저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2017년경부터 시작돼 케냐,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나이저리아가 네번째 나라였습니다. 나이저리아는 2023년 이슬람이 북부의 기독교 마을을 공격해 230여 명을 죽인 순교의 나라였고 티비 조슈아라는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알게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인구 2억 4천만 명 중 기독교인이 40% 정도 되는 아프리카 최고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세계 8대 교회 중 6개 교회가 이곳 나이저리아에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삶 가운데까지 널리 보급된 나라였습니다. 교회당의 규모나 찬양이나 시설 등을 보면 거의 한국과 장비의 성능만 뒤질 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처럼 이슬람과 대치하며 진짜 삶의 현장에서 죽고 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기에 이미 배우르고 축복을 다 받은 한국과 미국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지함과 절박함을 느낄 수

실 수 있는 우물(bore holes)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돈을 보내고 그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 받는 실정입니다. 이 일이 잘 되면 앞으로 마실 물이 없는 지역 열 군데를 더 발견해 열 개의 우물을 더 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진행된 집회는 500명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많은 은혜와 치유와 간증이 쏟아졌고 또한 이곳 나이저리아에서 두 개 교단과 연결이 되어 이후 계속 집회와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프리카가 땅끝입니다. 이곳 땅끝에서 다시 시작해 필리핀의 세계목회자콘퍼런스를 거쳐 한국과 미국의 깨어있는 교회들을 바른 복음으로 다시 세울 거대한 큰 그림이 이번 2024년 상반기 선교여행을 통하여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여행 기간 중 줌으로 매일 중보기도 해 주신 분들과 물질과 사랑으로 선교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 하반기 선교여행을 위해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꿈꾸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한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 美 국무부 발표... "인도 내 기독교 박해 우려 수준"



인도의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를 손에 들고 행렬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디스이즈크리스천 아시아 페이스북

미국 국무부가 최근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인도 내 기독교인 및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를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 목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국제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종교자유대사인 라샤드 후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199개국과 영토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블링컨은 연설에서 "인도에서 개종 금지, 증오 표현, 종교적 소수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주택 및 예배 장소의 철거가 우려스럽게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28개 주 중 10개 주가 모든 신앙에 대한 종교 개종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후세인 대사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지역 경찰이 개종 활동을 이유로 예배를 방해한 폭도들을 돕거나, 그들의 공격을 방관한 후 오히려 피해자들을 개종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고한다"고 했다. 보고서의 인도 섹션은 연합기독교 포럼(United Christian Forum, UCF)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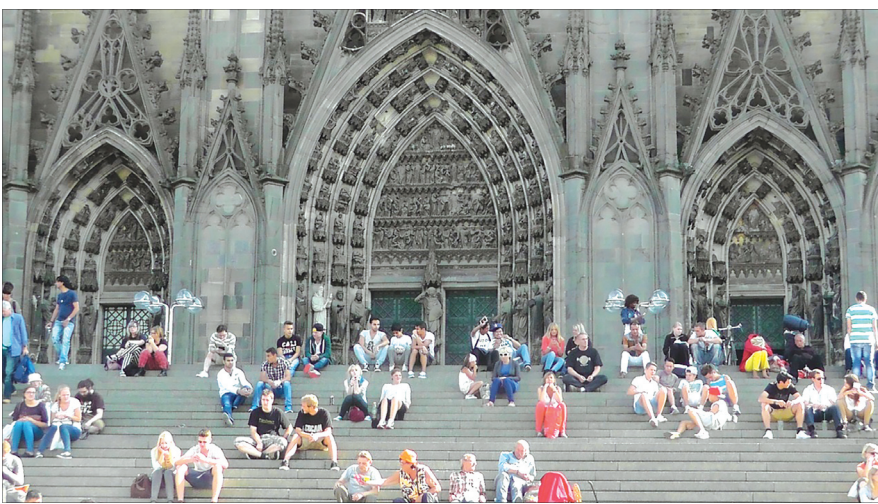
통계를 인용하여, 인도 내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2022년 599건에 비해, 작년에 731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이 옹호 단체의 반기독교 폭력에 관한 통계가 "과장되었다"고 인도 대법원에 주장한 반면, UCF는 "(기독교인 대상 폭력에 관한) 정부 자료가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2023년 4월 인도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인도 대법원은 반기독교 폭력에 대한 조사 요청이 공격에 대해 "과장되고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종교적 동기의 박해로 인용된 많은 사건들이 "틀렸거나 잘못 추정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로마 가톨릭 교구와 다수의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은 반대 진술서에서 이러한 공격이 "자연 발생적이거나 단독 범죄가 아닌, 일부 인도 주에서 종교 개종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힌두교 단체들에 의해 잘 계획된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2023년 세계감시목록(WWL) 보고서를 인용, 현지 기독교인들이 "인도인은 힌두교인이어야 하며, 그 외의 신앙은 환영될 수 없다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계속된 신념에 의해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 독일 가톨릭교인 수, 지난 2년간 약 92만 명 감소



켈른 대성당 입구 계단에 앉아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Pixabay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02,694 명이 독일 가톨릭교회를 공식적으로 떠났다. 이는 상당하기는 하지만 2022년 522,821명보다는 약간 적은 수치다.

내셔널가톨릭리porter(NCR)에 따르면,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한 독일 주교회의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이탈률"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교인들은 교회세 제도에 따라 재정적 영향을 받는다. 공식적으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은 더 이상 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 취소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저소득자, 실업자, 퇴직자, 학생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독일 주교회의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독일 가톨릭교회의 전체 신자 수는 약 2,035만 명에 이르렀다. NCR은 "이러한 이탈의 배경에는 성직자 확대와 관련된 스캔들에서 비롯된 오랜 위기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많

은 사람들이 가톨릭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교와 저명한 평신도 조직은 'Synodal Path'로 알려진 3개년 개혁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주교회의의 의장인 림부르크 주교 게오르그 바칭(Georg Bätzing)은 "수치가 놀랍다. 이는 교회가 광범위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며 "개혁만으로는 교회 위기가 해결되지 않지만, 개혁이 없으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인 수 감소의 문제는 독일 가톨릭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독일 개신교회도 지난해 38만 명이 탈퇴하는 등 상당한 감소 수치를 보고했다.

한편 미국에서 가톨릭교회의 상황은 특정 지역에서 대조를 이룬다. 2023년 10월 한 매체에 따르면, 북동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부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에서는 히스패닉 인구 증가로 인해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강혜진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위로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참배 &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세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밝히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제가 삼각지킴이와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교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장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일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M(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텍사스 법원, 동성 결혼식 주례 거부한 판사에 손들어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주 대법원. ©위키피디아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27일 웨이코의 치안판사 다이앤 헨슬리가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녀가 주 사법위원회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주 사법위원회는 이전에 헨슬리 판사가 동성 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성적 지향에 따른 사법적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공개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8 대 1 판결에서, 헨슬리가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별심사법원에 사법위를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를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텍사스의 종교자유회복법(Texas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헨슬리의 주례 거부가 사법적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그녀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헨슬리 판사는 2014년 맥레린 카운티에서 치안 판사로 선출되어, 그 이후로 두 번 재선되었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국가적 권리로 선언하자, 그녀는 맥레린 카운티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결혼식 주례자 목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헨슬리가 작성한 목록에는 그녀의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한 후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녀와 주례 비용이 같고 동시에 동성 결혼식 진행도 진행할 수 있는 주례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단 헥트 주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의견서는 “위원회에 대한 한 건의 신고 요청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소송은 위원회의 공개 경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나 주권 면책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헥트 대법원장은 “이에 우리는 관할권 부족으로 인해 한 건의 신고 요청을 각각 한 항소법원 판결의 일부를 확정한다”며 “나머지 판결을 뒤집고, 항소에서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도록 항소법원에 환송한다”고 명시했다.

헨슬리 판사의 법무 대리는 미첼 로우(Mitchell Law LLP)와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가 맡았다. 이들은 헨슬리가 동성 결혼식 주례

를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텍사스의 종교자유회복법(Texas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헨슬리의 주례 거부가 사법적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그녀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헨슬리 판사는 2014년 맥레린 카운티에서 치안 판사로 선출되어, 그 이후로 두 번 재선되었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국가적 권리로 선언하자, 그녀는 맥레린 카운티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결혼식 주례자 목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헨슬리가 작성한 목록에는 그녀의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한 후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녀와 주례 비용이 같고 동시에 동성 결혼식 진행도 진행할 수 있는 주례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9년 1월, 텍사스주 사법위원회는 헨슬리를 심문한 후, 그녀가 법정 업무 수행 중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규와, 판사의 법정 외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를 위반했다며 공개 경고를 내렸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헨슬리 판사는 그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사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항구 제재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김유진 기자

###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말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은교회 다스리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ord)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명 (행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미국, 'IS 연루 추정' 불법 입국자 400명 돌파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불법 입국자 400명 이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방 의회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테러 단체와 연루된 수십 명은 행방이 묘연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온 400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들을 “우려 대상”으로 분류했다. 25일 NBC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은 이들을 불법 이민 혐의로 체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5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50명 이상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세 명의 연방 당국자들이 이 매체에 전했다.

당국자들은 남부 국경을 넘어온 400명이 넘는 입국자들이 테러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들을 미국으로 석방한 이유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국가(IS) 계열인 ISIS-K가 러시아에서 테러를 감행한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단체가 활동한 지역에서 온 불법 입국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NBC에 따르면, 체포된 입국자들 중 일부는 추방되었으며, 구금되거나 추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계된 입국자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보도와 관련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린 위원장은 성명에서 “거의 매주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었거나, 다른 주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에 풀려나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린은 “과거에는 국경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행위자들이 이례적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현재 탄핵된 알라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하에서는 빠르게 규칙이 되어가고 있다”며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이들 중 한 명이 미국 땅에서 파괴적인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광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미국 국경 순찰대는 텍사스주 엘파소 근처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레바논 남성인 바셀 에바디(22)를 체포했다. 이 남성은 체포 후 선서 진술서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 헤즈볼라에서 7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무기 보관소 경비원으로 4년을 더 복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폭탄을 제조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자백했다. 올해 초, 국토안보부는 자신들이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에 있는 아프간 이민자를 고의로 미국에 입국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이 남성의 테러 관련성이 석방 전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남성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고, 망명 신청 및 취업 허가 신청이 허용되었다. 올해 3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5년 동안 남부 국경을 넘으려는 테러리스트나 테러 용의자들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불법 입국자 400명 이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방 의회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테러 단체와 연루된 수십 명은 행방이 묘연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온 400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들을 “우려 대상”으로 분류했다. 25일 NBC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은 이들을 불법 이민 혐의로 체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5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50명 이상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세 명의 연방 당국자들이 이 매체에 전했다.

당국자들은 남부 국경을 넘어온 400명이 넘는 입국자들이 테러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들을 미국으로 석방한 이유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국가(IS) 계열인 ISIS-K가 러시아에서 테러를 감행한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단체가 활동한 지역에서 온 불법 입국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NBC에 따르면, 체포된 입국자들 중 일부는 추방되었으며, 구금되거나 추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올해 초 국경 보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지만, 법안의 반대자들은 오히려 이 법안이 국경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달 초, 마크 E. 그린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공화·테네시주)은 IS와

연계된 입국자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보도와 관련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린 위원장은 성명에서 “거의 매주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었거나, 다른 주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에 풀려나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린은 “과거에는 국경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행위자들이 이례적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현재 탄핵된 알라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하에서는 빠르게 규칙이 되어가고 있다”며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이들 중 한 명이 미국 땅에서 파괴적인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광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미국 국경 순찰대는 텍사스주 엘파소 근처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레바논 남성인 바셀 에바디(22)를 체포했다. 이 남성은 체포 후 선서 진술서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 헤즈볼라에서 7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무기 보관소 경비원으로 4년을 더 복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폭탄을 제조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자백했다. 올해 초, 국토안보부는 자신들이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에 있는 아프간 이민자를 고의로 미국에 입국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이 남성의 테러 관련성이 석방 전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남성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고, 망명 신청 및 취업 허가 신청이 허용되었다. 올해 3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5년 동안 남부 국경을 넘으려는 테러리스트나 테러 용의자들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이미경 기자



# 美 연방대법원, “응급 상황시 낙태 시행 확대” 손들어줘



미국 연방 대법원. ©Pixabay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 주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된 소송을 기각하며, 응급 낙태 수술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지침을 허용한 하급심 판결을 인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이 이끄는 아이다호 주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주의 낙태 금지법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응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에 따라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오전 발표한 재판 의견서에서 대법원은 ‘모일 대 연방정부’(Moyle v. United States) 및 ‘아이다호 대 연방정부’(Idaho v. United States) 사건이 “부주의하게 허가되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Medicare,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 기금을 받는 병원에 응급 상황에서 낙태 시술을 의무화한 하급심 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취소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동의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함께했다. 배럿 대법관은 “우리가 상고를 받아들인 이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은 상당히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배럿은 “당사자들은 EMTALA(응급 의료 처치 및 활동 노동 법률)이 병원이 낙태를 제공하거나 주법에 의해 금지된 다른 치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지 논

쟁하고 있다. 또한 EMTALA가 연방 의회의 지출 권한에 따라 제정되고 개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주법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내 판단으로는 지금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 이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후 아이다호 법이 두 번이나 크게 바뀌었다”며 “우리가 상고를 승인한 이후 당사자들의 소송 입장으로 인해 분쟁의 범위가 불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판결 기각이 발표되기 전날, 한 익명의 인물이 대법원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뒤, 다음날 나올 예정인 의견서 사본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EMTALA에 따라 응급 낙태를 허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블룸버그 로우가 27일 보도했다. 전미생명권위원회는 유출된 의견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다른 50개 주와 마찬가지로, 하급 법원이 응급 의료 상황에서 낙태 및 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아이다호 법을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EMTALA는 1986년에 통과되어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응급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메디케어에 참여하는 병원은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김유진 기자

# 美 연방대법원, 아이다호주 낙태 금지 소송 기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생명의 행진'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 ©March for Life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고 병원에 긴급 낙태 수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지침을 허용하는 하급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아이다호 주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를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주정부의 전면적 낙태 금지 법안을 놓고 법적 대립을 벌여왔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응급 의료 및 노동법에 따라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6월 27일 오전 공개된 간략한 전원일치 의견서에서 “모일 대 미국”(Moyle v. United States) 사건과 ‘아이다호 대 미국’(Idaho v. United States) 사건이 경솔하게 승인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이 사건에 대한 주장을 듣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연방정부가 필수적 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병원에 응급 낙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하급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 유예를 취

소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브렛 캐버노 판사와 함께 결정에 대한 동의 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우리가 상고를 허가한 이후 이러한 사건의 형태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밝혔다. 배럿 판사는 “당사자들은 ‘응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EMTALA)이 병원에 낙태나 주법에 의해 금지된 다른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치료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의회의 지출권에 따라 제정되고 개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인 EMTALA가 주법(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사안)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 판단으로는 지금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후 아이다호 법은 크게 두 번이나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서를 승인한 이후 당사자들의 소송 입장은 (법적) 분쟁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가디노회) 오전 8:30 토요일(가디노회) 오전 8:30(토) 오전 8: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들뜸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종교동부(아기배출) 오전11:00 영아부예배(만음제물)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사랑부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종교동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금요일(가디노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요일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가디노회)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OC예배 9:00(월-토) 오후 7:30 새가족 등록 오전 5:30(토) 오전 8: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주일 EM예배 새벽기도회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12:30 오후 12:30 오전 6:00(화-토)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교목부예배 주일 수요예배 새벽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저녁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오전 9:45 오전 11:30 오전 11:00 저녁 7:30 주일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9:00(월-토) 오후 7:30 E.l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주일저녁찬양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11:00(교회 동시통역) 오후 7:00 오후 8:00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아시아미용기술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바편, 슬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결합,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미주장신, 새 이름으로 새 출발!

미주장신(총장 이상명 박사)이 교명을 변경했다. 이 대학에서 발행한 7월호 뉴스레터 따르면, 지난 봄 정기 이사회에서 교명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에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현의안을 제48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결의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로 교명을 바꾼 것은 국제적인 지도와 명성을 높이고 다문화 다민족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에 따른 결정이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라는 이름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고등 교육의 우수성과 프레스티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육의 품질과 학문적인 엄격함을 강조한다. 글로벌 교육 기관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학교의 결단이었다. 이 대학은 당분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라는 교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 대학은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각 학위 과정별 입학 설명회(Zoom ID: 626 756 1800)를 진행한다. 학사과정은 7/26(금) 오후 4시, 8/9(금) 오전 10시, 목회학 석사과정은 8/2(금) 오전 10시, 8/9(금) 오후 4시, 상담심리학 7/26(금) 오전 10시, 8/16(금) 오후 4시, 전문코칭학 7/26(금) 오전 10시, 8/16(금) 오후 4시, 목회학(영어과정)은 8/12(월) 오후 2시, 목회학 박사과정 8/12(월) 오후 4시, 선교학 박사과정 8/8(목) 오후 3시이다. 김민선 기자

## 동양선교교회 창립 54주년 기념 부흥회

**동양선교교회 창립 54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7월 12일(금) 오후 7시 반석위에 세운 교회 마태복음 16장 13-20절

7월 13일(토) 오전 6시 뷰티플 랜딩 예배소서 5장 15-21절

7월 13일(토) 오후 6시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1-5절

7월 14일(주일) 1부, 연합예배 ◯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찬양: 남은뜻연합선교회 대표  
강사: 김동호 목사님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가 창립 54주년을 맞아 7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김동호 목사(전 남은뜻연합선교회 대표)를 초청해 부흥사경회를 진행한다. 오는 14일(주일) 1,2,3부 예배는 5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며 연합예배 후 본당에서 찬양경연 축제' 심포에버'를 연다. 1970년 고 임동선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는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부흥회 일정: 7/12(금) 오후 7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마 16:13-20)  
7/13(토) 오전 6시 "뷰티플 랜딩" (엡 5:15-21)  
7/13(토) 오후 6시 "그리스도의 편지" (고후 3:1-5)  
7/14(주일) 1,2-3부 연합예배 "하나님만 섬기라" (수 24:15)

## 시니어 위로하는 제3회 구영순 독창회

시니어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구영순 독창회'가 올해로 3회를 맞는다. 구영순 씨는 시니어 전문 보험 에이전트로서 한인 사회에서 꾸준히 시니어들의 삶을 위해 애써온 보험 에이전트이다. 지난 2회 동안의 독창회 동안 많은 시니어들이 위로를 받으며 사랑을 받았지만 '성대마비'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맞이하여 한동안 독창회를 열지 못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러한 내 모습을 보고도 누군가는 희망을 얻지 않겠어요?' 구영순 에이전트는 백 프로 회복되지 않은 목에도 불구하고 이번 7월에는 3회 독창회를 열기로 다짐했다. 그 마음에 센터메디컬그룹도 함께하기로 하였고 전해졌다. 테너 오휘영, 반주 구소라와 함께 꾸며지는 독창회는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미주 평안교회 (170 Bimini Pl. LA, CA 9004)에서 열리게 되며 누구나 와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번 독창회에서는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센터메디컬그룹이 준비한 푸짐한 선물을 받게 된다. 문의는 (213) 595-4700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제3회 Soprano 구영순 독창회**  
[일시]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미주 평안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문의] (213)595-4700  
[주최] 센터메디컬그룹  
[후원] 아스타마 보험 | 한국일보 | 중앙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우리방송 | 수호천사보험 | 나경세일교회 | 이스라엘 전교회  
음악으로 힐링하고, 센터메디컬그룹의 후원한 구디백을 받아주세요. 테너 오휘영 반주 구소라

## KAC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 성황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가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2024 전국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National College Leadership Conference, 이하 "NCLC")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5년만에 재개되어 18명의 한인 2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언론, 법조계, 의학계 등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인 정체성에 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USC 마살 경영대학원 그레그 패튼(Greg Patton) 교수를 통한 '나'를 찾아가는 리더십 훈련,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의 재정 세미나, 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 데이비드 최(David Choi) 콘래드 Nhill 석좌 교수의 브랜드 빌딩 강의, 리더와의 토론, 다큐멘터리 영화 "이철수에게 자유를(Free Chol Soo Lee)"의 공동 감독인 줄리 하(Julie Ha)와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대담, 임상심리학자인 리디아 김(Lydia Kim)박사와 정신건강과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짚어보는 세션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고찰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관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이번 NCLC가 차세대 한인 대학생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미주류사회에서 역량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시민참여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움과 훈련의 장을 제공했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멘토링,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한인 차세대들이 각자 본인들에 맞는 길을 개척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리더십 컨퍼런스는 한미장학재단, 김용환 장학 재단,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재외동포청, 오픈뱅크, McDermott Will & Emery 법률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Kim & Lee 회계법인, 한미연합회 전국 부이사장을 지낸 그레이스 김 등이 후원했다. 김민선 기자

2024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 ©한미연합회(KAC)

등 20여 명의 한인 지도자들 및 전문가들이 멘토링, 강연, 토론과 네트워킹을 통해 학문적, 전문적 조언과 자원들을 제공하고 차세대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6월 17일 오프닝 행사에서는 한미연합회 공동 창립자인 던컨 리(Duncan Lee) 변호사가 한인 커뮤니티와 한미연합회의 역사와 발전

4.29 LA 폭동에 대한 다큐멘터리, "Saigu Remembered" 관망 및 도트워킹을 통해 학문적, 전문적 조언과 자원들을 제공하고 차세대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6월 17일 오프닝 행사에서는 한미연합회 공동 창립자인 던컨 리(Duncan Lee) 변호사가 한인 커뮤니티와 한미연합회의 역사와 발전



### 사설

## 여고생 사망사건이 불러온 이단 경계령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원파' 계열의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합창단장 등 공범 혐의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이 최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를 기쁜소식선교회 산하 합창단 단장 B씨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했는데 B씨가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고생 학대 살해 사건이 '구원파' 교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숨진 여고생은 대전의 모 대안학교에 다니다 올 초 부친이 사망하자 어머니와 함께 인천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인천 기쁜소식선교회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교회 산하 합창단 숙소에서 지내던 이 여고생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쯤 교회에서 식사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사망한 여고생을 운모에 멍이 들 정도로 구타를 일삼는 등 학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고생이 자해를 하려고 해 막으려 했을 뿐 학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이 A씨가 피해 여고생을 상대로 장기간 이 단체 건물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등 학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여고생의 운모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 결박된 흔적이 발견된 점 등 오랜 시간 고의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시신 부검결과 피해 여고생의 사인을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는 증상)'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구속된 50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옥수 씨 딸 B씨의 주도하에 피해 여고생이 오랜 기간 폭행을 당했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들이다. 양손이 결박당한 모습의 피해 여고생의 사진과 A씨가 해당 여고생의 학대 상황을 전화와 문자로 합창단장 B씨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 드러남으로써 이들은 미성년자를 학대해 살해한 죄목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왜 이들이 약한 여학생을 이토록 장기간 감금해 학대하고 살해했는가에 쏠리고 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왜 합창단원으로 받아들여 죽음에 이르도록 구타와 학대를 반복했는가에 하는 점이다. 일각에선 '구원파' 계열인 기쁜소식선교회의 교리가 잔인한 학대행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단상담 전문가들은

'구원파' 신도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구원파' 교리에 비쳐볼 때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며 여고생을 장기간 감금 폭행하고 학대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책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등 자기의 행동의 합리화를 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봉하고 추종하는 교리가 피의자들의 범행을 부추겼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구원파'는 대한예수교침례회(이오한), 기독교복음침례회(권신찬·유병인),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로 나뉜다. 이들은 원죄를 회개하면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교리를 내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이 폐지됐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짓는 일상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일명 '구원파'로 불린다.

'구원파'하면 떠오르는 것이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참사라는 기억에서 지우고픈 단어들이다. 이들과 '구원파'의 한 갈래인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는 매년 서울 등 대도시의 체육관을 빌려 성경세미나를 개최하며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등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이단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박 씨의 성경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고 죄에 대한 회개는 오직 한 번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기성 교인들이 계속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구원관을 전파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박 씨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예장통합, 합동, 고신, 기성)에 의해 이단사이비 집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런 박 씨가 최근 기독교사학인 김천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에 이단 경계령이 떨어졌다.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몰린 기독교 사학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늦었지만 이제라고 교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씨의 딸과 기쁜소식선교회 소속된 신도들이 한 여학생을 구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박 씨가 전파하는 교리를 굳게 신봉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박 씨가 잘못된 교리로 신도들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면죄부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을 것이란 건 개인성이 충분하다.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의 여고생 학대 살해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오대양, 세월호 참사 사건 못지않은 사회적 파장을 던질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럴수록 한국교회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이단의 발호를 막아야 할 것이다.

### 강준민 칼럼

## 조금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나이가 들면서 가끔 어릴 적 생각을 상기(想起)해 보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문득 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저는 왜소하고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머리가 명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죽고 싶다”는 말을 가끔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면 불안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신다면 살 길은 하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에 성실은 착함이었습니다. 꾸준함이었습니다. 제가 성실이란 단어를 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해야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저는 그 당시 큰 꿈을 가슴에 품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은 성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실을 무기로 삼자.”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말씀 드리지만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 자신을 성찰할 때마다 성실함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실에 관심을 갖고 전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총명한 어린 아이가 아니었기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 성실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제가 무기로 삼은 성실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실은 좋은 성품입니다. 성실은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성실(誠實)이란 말은 “정성(正誠) 성(誠)에 열매(實) 실(實)의 합성어입니다. 성실(誠實)에서 성(誠)이라는 한문은 “말씀(言)에 “이름(名)에 “합해진 단어입니다. 성(誠)이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관성을 통해 시작한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誠實)에서 실(實)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어 집안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實)이라는 한자는 열매와 뿌리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뿌리가 깊고 견고한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성실은 제가 강조하는 “뿌리 깊은 영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에게 배우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무는 폭염을 견뎌낼 때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나무에게 배우는 성실은 꾸준함입니다. 한 길을 오랫동안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영적 성숙이란 단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꾸준한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 이름은 니체의 글에서 나왔습니다. 니체는 “하늘과 땅에서 본질적인 것은 동일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다. 이는 항상 결과적으로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자신이 니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한 말은 아주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동일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성경과 함께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 성실함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성실을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성실에 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로버트 클리어는 “성실은 하루하루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성실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빈스 롬바르디는 “성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성실은 지속적인 성공의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삼상 16:7).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시작한 일을 마치십시오. 공부를 시작했다면 시작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십시오. 우선 작은 일부터 끝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무슨 일든 끝맺음을 잘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작은 성취가 쌓여 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성실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2024

## ONE-POINT DRAMATIC SERMON

###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세미나

“청중을 사로잡는 강해설교 작성법, 이틀간의 세미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29(월)~30일(화)

- **시간** : 오전 9:30~오후 4:50
- **장소** :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 **등록방법** :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 **문의** : 213-434-1170

- **대상** :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 등
- **특전** : 강의안 및 점심 식사 제공

## 선착순 50명!

온라인 신청



#### ● 강사소개

- 계명대 (BA 영문과)
- 총신대 신대원 (M.Div. 목회학)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Th.M 구약학 수료)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Th.M 신학약)
- University of Pretoria (Ph.D 설교학)
- 현아신대 설교학 교수
- 현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회장
- 저서 <설교의 삼중주> 등 다수

신성욱 교수  
현 아신대 설교학 교수

## 세미나 소개

1970년부터 '3대지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포인트 설교'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30분 설교를 작성하기 어려워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이 3대지 설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교수는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프레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구성법, 전달기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청중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원포인트 설교작성의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열 수 있길 기대하며 남가주 지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공동주최 : 기독교일보, 월드미션대학교



민중기 칼럼

# 참을 수 없는 구원의 가벼움을 넘어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지난 28일에 오후 미주장신대에서 이상명 총장님의 학위논문을 번역하여 출판한,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2024)이라는 도서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서평자 중의 한 사람이 되어, 구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자는 바울 서신을 통해 구원을 하나의 큰 드라마, 곧 우주적인 드라마로 조명했습니다. 성경 언어들, 바울을 둘러싼 당시의 철학, 종교와 세계관을 탐색하며, 저자는 바울 사도의 구원을 거대 담론(meta-narrative)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독

서를 하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투여한 노력과 금전, 그리고 시간 사용을 생각하며 저자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시대는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참을 수 없는 구원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구원의 문턱을 인위적으로 너무 낮추어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늘 확인해야 할 영적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란 하나의 과점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여행, 건축이나 농사처럼 성화와 성숙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추수를 위한 알곡은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성장을 배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묵회하는 동안에 “구원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는가”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떤 성도가

“민 목사가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안 가르쳐 주었다” 혹은 “우리 가족 장례식 때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았다” 말하며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제게로 돌린다면, 이는 명백한 저의 재난입니다. 이는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혼의 의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값싼 구원, 가짜 구원을 피하는 방법은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정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곧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구원은 정치적 반응의 차원을 가집니다. 믿음은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왕권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 실존적 차원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 구원의 결단은 나의 운명의 지침

을 돌려놓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돌아가는 수직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구원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믿음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의 공동체, 즉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공동체적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드라마는 교회라는 역사적인 공동체를 새롭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자 왕으로 모시는 정치적 차원,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기독교의 복음 같은 거대 담론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일성을 주장하는 거대 담론이 종종 억압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주, 인간, 영적인 세계와 미래를 포괄하는 거대 담론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억압과 소외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는 소외가 아닌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희생, 배제가 아닌 포용을 그리고 상처가 아닌 치유를 전달하는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 오 신실하신 주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추구하고 싶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참 애매합니다.

르네 비오트(Rene Biot, 1889-1966) 라는 의사가 창설한 “리옹 의학, 철학, 생물학 연구회”에서 지난 1955년, 강연에 초청되었던 독일의 철학자요 교육가인 쿠르트 한(Kurt Hahn, 1886-1974) 교수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하나의 역설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역설에 대한 한 예입니다. “인간은 그의 기술적 성공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기술적 목표는 성공을 더욱 확실히 하자는 것이지만 기술의 승리는 인간의 과멸 즉 최고의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쿠르트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문명이 주는 많은 이기 속에 점점 더 그것에 노예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철학자 쿠르트 한이 제시했던 말에 크게 동감이 됩니다.

이처럼 외면적 성공이 내면적 실패로 비출 수 있어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기란 참 애매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오늘날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부자들을 보면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겠지만 자신의 삶 자체는 성공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성공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로운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고 정신의학자요 기독교 상담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 1898-1986) 는 이야기 합니다. 이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절대성을 깊이 신뢰하며 모든환경 가운데서 언제나 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토마스 오베디아 치솔름(Thomas Obediah Chisholm, 1866-1960) 이 작시한 “오 신실하신 주(Great is Thy faithfulness)” 는 이러한 고백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찬양입니다.

이 곡을 작시한 치솔름은 캔터키의 작은 마을 프랭클린 출신입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여섯 살에 교사가 되었고, 1893년 캔터키주의 월모어에

있는 애즈베리 대학의 5대 총장인 헨리 클레이 모리슨(Henry Clay Morrison, 1857-1942)의 사역을 통해 치솔름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지성과 야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스물한 살에는 고향 주간 신문인 프랭클린 애드보케이트의 부편집장이 되었고 이후 신학을 하여 1903년 감리교 목사안수를 받고 켄터키주 스코츠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 악화로 인해서 1909까지 한 팀의 짧은 임기만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솔름 목사님은 찬송시를 즐겨 쓰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의 생애 동안 1200편이 넘는 시를 써서 그 중 800편이 출판되었습니다. 1923년 치솔름은 이 “오 신실하신 주(Great is Thy faithfulness)”를 써서 무디 성경 연구소의 음악가이자 시카고에 있는 호프 출판사의 편집자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H. 런안(Rev. William H. Runyan, 1870-1957)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런안은 이 찬송시에 애착을 갖고 말하기를 “이 특별한 시는 너무나 호소력이 있어서 나는 이 곡이 효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며 깊은 영감을 더해 이 시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삶이 힘들 때도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에 대한 증거인 “오 신실하신 주”는 인생에서 오랜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치솔름이 이 찬송을 기초로 한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3: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직후 당시 유다의 운명이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때 쓴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애3:22 라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1963)가 쓴 “온전한 믿음을 추구함 (Toward a more perfect faith)”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사용한 시간과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것으로 거래하려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함을 자신의 영혼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 토시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성공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비로소 이때 진심으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를 마음에 담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자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 서울메디칼 그룹 주치의



- |   |   |   |  |  |  |  |   |
|---|---|---|--|--|--|--|---|
| <br>한경모<br>Kyung Mo Han | <br>조지 인<br>George In | <br>백상현<br>Sang Hyun Baik | <br>이영직<br>Young-jik Lee | <br>이선우<br>Sonwoo Lee | <br>강두만<br>Deno Kang | <br>강훈구<br>Hun Ku Kang | <br>다이아나 김<br>Diana Maria Kim |
|---|---|---|--|--|--|--|---|

- |  |   |   |  |  |   |   |  |  |
|--|---|---|--|--|---|---|--|--|
| <br>카렌 김<br>Karen Kim | <br>김경애<br>Kyoung Ae Kim | <br>김성현<br>Sung Hyun Kim | <br>김승현<br>Seung Hyun Kim | <br>김영진<br>Evan Kim | <br>김일영<br>Il Young Kim | <br>김정한<br>Peter Kim | <br>스티브 박<br>Steve Park | <br>손향은<br>Hyang Eun Sohn |
|--|---|---|--|--|---|---|--|--|

- |  |   |   |  |  |  |  |  |  |
|--|---|---|--|--|--|--|--|--|
| <br>송명재<br>Mark M. Song | <br>신동원<br>Dong Won Shin | <br>로리 안<br>Lauri I An | <br>안승록<br>Seung R An | <br>윤은주<br>Eun Joo Yoon | <br>잔 음<br>John Ehum | <br>이용태<br>Yong Tai Lee | <br>임대순<br>Dae Soon Rheem | <br>임영빈<br>Justin Rheem |
|--|---|---|--|--|--|--|--|--|

- |   |   |  |   |  |   |  |   |  |
|---|---|--|---|--|---|--|---|--|
| <br>임대순<br>Dae Soon Leem | <br>정만길<br>James J. Jung | <br>정준<br>Jun Chung | <br>정희수<br>Hee Soo Jeong | <br>조아라<br>Ahra Cho | <br>주우진<br>Woojin Joo | <br>프랭크 최<br>Frank Choe | <br>허남형<br>Brian Huh | <br>최순아<br>Soon Ah Choi |
|---|---|--|---|--|---|--|---|--|






- |  |   |  |  |   |  |  |  |
|--|---|--|--|---|--|--|--|
| <br>김홍식<br>Hong Sik Kim | <br>폴 장<br>Paul S. Chang | <br>하태준<br>Robert T. Ha | <br>잔 김<br>John Kim | <br>홍훈기<br>Hoon Gi Hong | <br>김방선<br>Bang Sun Kim | <br>송채원<br>Chaewon Song | <br>강수웅<br>Soo Woong Kang |
|--|---|--|--|---|--|--|--|

- |  |   |   |   |  |  |  |   |  |
|--|---|---|---|--|--|--|---|--|
| <br>김대중<br>Dae-choong Kim | <br>김성현<br>Sung Hyun Kim | <br>김종진<br>Jongjin Kim | <br>김진세<br>Chin Se Kim | <br>박재만<br>Jae Man Park | <br>방재훈<br>Jason J. Pang | <br>송명재<br>Mark M. Song | <br>신창은<br>Chris C. Shin | <br>안규동<br>Kyu Dong Ahn |
|--|---|---|---|--|--|--|---|--|

- |  |  |   |   |   |   |   |  |
|--|--|---|---|---|---|---|--|
| <br>안우성<br>Woo Sung Ahn | <br>오문목<br>Moon M. Oh | <br>이광혁<br>John K. Lee | <br>이용호<br>Yong Ho Lee | <br>이효구<br>Joseph Yi | <br>알버트 장<br>Albert Chang | <br>최원배<br>Wonbae Choe | <br>리차드 한<br>Richard S. Han |
|--|--|---|---|---|---|---|--|



- |  |  |  |
|--|--|--|
| <br>석태영<br>Larry T. Suk | <br>임영빈<br>Justin Rheem | <br>김학준<br>Philip Kim |
|--|--|--|



- |  |   |  |   |
|--|---|--|---|
| <br>장국일<br>Kook Il Chang | <br>리사 김<br>Lisa Kim | <br>박성수<br>Richard Park | <br>유경수<br>Kyung Soo Yoo |
|--|---|--|---|



- |   |   |   |   |
|---|---|---|---|
| <br>백성렬<br>Jason S. Paek | <br>변상준<br>Sangjun Byeon | <br>오희용<br>Hee Yong Oh | <br>신예용<br>Yeyong Shin |
|---|---|---|---|

한인 의료진이 가장 많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서울메디칼 그룹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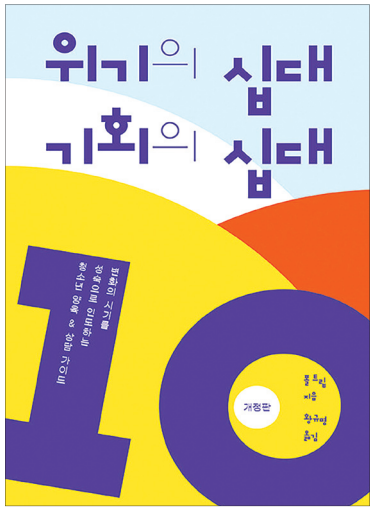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9-0077 / 800-611-9862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위기를 기회로, 변화 시기를 성숙으로

# 10대 자녀들을 둔 크리스천 부모의 양육 자세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폴 트립 | 황규명 역 | 디모데 | 448쪽 | 20,000원

청소년과 부모들을 오랫동안 상담해온 폴 트립은 십대의 시기를 두려움과 절망의 광야가 아닌, 희망이 가득한 양육의 황금기라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자녀의 마음속 욕망, 자기 의로움, 믿음의 연약함, 사랑의 부족함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 자녀와 더 깊이 이야기하고,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십대라는 시기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경의 가르침을 들려줌으로써 활력 있는 신앙을 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의 때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십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말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미나에 참석한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한 말이다. 10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사랑한다(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도 고통스럽다. 십대 자녀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에 부모에게 쏟아내는 말들과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를 위기라 보고,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뛰어난 성경 상담학자인 폴 트립의 생각은 다르다. 네 아이가 장성하게 자랄 때까지 양육한 경험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10대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한다.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는 1997년 폴 트립이 쓴 책으로 2004년 디모데 출판사를 통해 번역 출간됐다. 2001년과 2022년 개정된 이 책은 다시 디모데 출판사를 통해 2024년 개정판으로 우리에게 나왔다. 책의 부제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힌다. 이 책은 ‘변화의 시기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청소년 양육 & 상담 가이드’이다. 십대 시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리고 기록해지지는 것이다. 부모는 무엇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엢 6:4), 자녀와 나누는 모든 관계의 기회를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십대와 부모’에서는 십대를 양육하는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기

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이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그들만의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을 꾀하고 존경과 보답을 요구하거나 성공과 통제를 추구하는 부모의 이상승배 문제라고 밝힌다.

트립은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정의와 역할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신 방법과 그 순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폴 트립은 1부 마지막 장에서 십대 자녀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들은 지혜와 징계에 무관심하고 친구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성적 유혹에 취약하고 마음의 문제에 둔감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데 무감각하다. 자, 이런 특징을 갖는 십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폴 트립은 먼저 자녀 양육 목표를 바르게 세울 것을 제안한다. 부모가 추구하는 이상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 그분의 은혜를 추구하라고 말한다. 부모는 자녀를 둘러싼 세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십대를 훈육할 때는 어린 자녀를 대하듯 통제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 자녀가 요청하거나 부모가 그 필요를 발견할 때,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부모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녀의 말을 인내심 있게 경청하며 그들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자녀는 곧 집을 떠나기 마련이다. 자녀 양육 목표는 그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복음과 그 복음에 함당한 양육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는 실제로 매트 켈러와



지난해 서울광장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모습(본 사진은 해당 기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CTS

J. D. 그리어가 십대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유익을 경험한 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녀 양육 전문가의 발언이 대중적 인기와 영향을 갖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 상담 가이드에서 우리는 아이가 죄를 깨닫게 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돕는 기준도 없다. 철저한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개인의 욕구와 바람을 중심에 둔 조건과 치료만 있을 뿐이다.

세속적 자녀 양육은 복음이 하는 일과 정반대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 자기 유익을 구한다. 아이의 인권과 요구를 소중히 여기고

민감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잘 되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하는 것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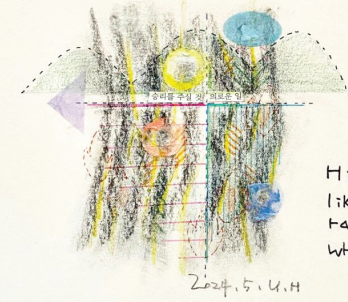
이런 실정에 그리스도인 부모가 특별히 십대 자녀를 양육할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가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오랜 세월 많은 기독교 가정에 유익을 끼친 이 책이 담고 있는 복음적 원리와 실천을 통하여 많은 부모(혹은 예비 부모)가 겪고 있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를 소망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명희 권사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히브리서 3:4



His splendor was like the sunrise; rays flashed from his hand, where his power was hidden. HEBREWS 3:4

용수산

##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ACS, SACS 인증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피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훈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AACS 인증
-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1-20 발행 및 라우팅 장학생도
- 학사금 지원 (Sch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석사(Ph.D), 목회학 석사(Th.M), 목회학 석사(Th.M),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목회학, 중국어 신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신학, 선교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AACS, SACS 인증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AACS, SACS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대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렘브란트, '63세의 자화상'

# 렘브란트의 삶과 신앙 보여주는 만년의 '자화상'



렘브란트, 63세의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86x70.5cm, 내셔널 갤러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 <거장의 시선전> (2023. 6. 2-10, 9) 감상 후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09)의 자화상은 17세기 미술이나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그의 자화상은 60여 점의 회화, 20여 점의 에칭, 10여 점의 드로잉을 합쳐 90여 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 전체에서 거의 10%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는 그가 매년 평균 두 점의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자화상은 유사한 것이 거의 없다. 작품들은 시기별로 기법과 스타일 면에서 특징을 각각 달리하며, 이것은 그가 한 점 한 점의 자화상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말해준다.

미술사학자 제이콥 로젠버그(Jacob Rosenberg)는 오랜 전통의 초상화 방면에서 기법의 능숙함, 관찰의 예리함, 특출난 재능 등 그에 필적할만한 화가가 없었다고 하였다. 내셔널 갤러리 소장 '63세의 자화상'은 그가 숨을 거두던 해에 제작된 것이며, 말년의 특징을 충실히 보여준다. 물감을 두껍

게 바르는 방식으로 나이가 든 모습을 전달하였는데, 얼룩덜룩한 피부와 흰 머리카락, 술이 적어진 눈썹 그리고 입 주변 퉁퉁한 수염을 여과없이 그렸다. 얼굴이 선명하게 묘사된 것에 비해 옷과 배경은 얇게 칠하여 얼굴에 조명을 비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수척한 표정과 주름진 얼굴은 당시 초상화를 그리는 화풍과 매우 차이 나는 것이었다.

호바르트 플링크(Govaert Flinck)와 반데르 헬스트(van der Helst)와 같은 화가들이 추구했던 맵시 있는 화풍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의 화풍은 점점 더 대중적 취향에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불행한 사건이 연거푸 몰려옴에 따라, 본의 아니게 짐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아내 사스키아의 사망, 외아들 티투스스를 비롯하여 4명의 자녀를 모두 잃는 슬픔, 빚 독촉과 경제적 몰락, 인생의 내리막길...

마티아스 사이츠(Matthius Scheits)의 기술처럼, 그는 "뛰어난 예술성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말년에 이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사

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교제에 서툴렀다. 이러한 정황은 그가 거칠고 투박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 비록 대중의 취향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는 그만의 고집스러운 길을 찾아 가고 있었던 셈이다.

둘째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 내면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인물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는 그 자신이 모델이 되어 언제든지 그릴 수 있다는 편리성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는 그의 자화상이 갖는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 인간 내면을 꿰뚫어보고 싶다면, 우선 자신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렘브란트는 다른 사람의 내면 못지않게 자신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끌렸고, 그러한 내면의 성찰은 그의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그의 접근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63세의 자화상'은 인생 끝자락에 와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림을 보면서 침울하다거나 무기력하다는 식의 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 세상 풍파를 다 거친 의연한 모습의 노인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단어를 골라내기 곤란할 정도로 그 표정이 미묘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다. 정면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에는 삶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추억과 연민, 온화함, 밀물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외로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X선 촬영 연구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처음에는 붓을 들고 작업 중인 화가로 의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는 생각을 바꾸어, 점차 나이 든 얼굴의 색채와 주름진 피부에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자화상'(1665-1669)이다.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어떤 미화 없이 단지 파렛트와 붓을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 아마도 렘브란트가 '63세의 자화상'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완성시켰다면 이 같은 포즈를 취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그림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렘브란트는 붓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림으로 시작하여 그림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노라마같이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그의 작품을 보면 직업 이상의 진지함이 실려 있다. 즉 삶의 체계로서 신앙이 예술에서 공간을 이룬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삶과 예술로 드러내는 것이 곧 본인의 소명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망하던 해 완성한 역작 '돌아온 탕자'는 그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준다. 죄로 물든 인간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적으로 묘출하였다. 단지 성경의 내용을 그린 것을 넘어 그 자신을 탕자로 표현함으로써 인생의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였다.

'63세의 자화상'은 '돌아온 탕자'가 그려진 해에 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예전에 보이던 당당함과 거만함 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랑에 빛진 자'로서의 감정이 묻어난다.

그의 이마에 내리쬐는 빛은 단순한 인공적인 조명이 아니라 죄악을 덮어주는 은혜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란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을 감상하는 관람객들.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청빙**

워싱턴주 (WA), 레이스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십니다.

**부서: 행정 및 Youth Group 전임 부목사(Full time)**

- 지원 자격**
  -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 (2)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Youth Group 담당 경험이 있으신 분)
  - (3) 교회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지원 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4) 추천서 (목사-2인): 목회자 2인 중에서 현재 혹은 이전에 섬긴 교회의 담임목사
- 서류제출 및 마감**  
모든 서류를 [ocpc91@gmail.com](mailto:ocpc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자: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 문의 허재영 목사: T.(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O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를([www.kocpc.org](http://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http://www.kocpc.org)



# 라이스 美 전 국무장관 “종교의 자유, 그냥 얻은 것 아냐”

## 2일 열린 제55회 극동포럼서 ‘자유민주주의’ 중요성 강조



라이스 전 장관이 김요셉 목사와 대담하고 있다. ©극동방송

콘돌리자 라이스(Dr. Condoleezza Rice) 미국 전 국무장관이 2일 서울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린 제55회 극동포럼에서 강연했다.

흑인 여성 최초이자 미국의 두 번째 여성 국무장관인 라이스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여성 최초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으며, 스탠포드대학교의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81년부터 스탠포드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 학교에서 최고 교육상을 두 번 수상했다.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에서 태어난 라이스 전 장관은 덴버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노트르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덴

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의 일원이기도 한 그녀는 15개 이상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후버연구소의 Tad and Dianne Taube 디렉터이자 공동정책 분야 선임 연구원, 그리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글로벌비즈니스와 경제학 교수다.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국제전략 컨설팅 회사의 창립 파트너로도 일하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는 이날 극동포럼에서 “라이스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책임진 바 있으며,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

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라이스 전 장관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전 목사였다고 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소개로 강단에 오른 라이스 전 장관은 김장환 목사의 아들인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와의 대담 형식으로 강연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먼저 “굉장히 이상하고 예측불허한 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잊어선 안 된다”며 “한국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사람에게 핵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중국도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한반도 정세 불안을 허용할 미국의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정은을 만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김정은은 협조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 때의 경험이 있어서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또 “미국 대통령을 보좌했을 때 미국의 정책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떤 나라의 국민들도 독재 안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모든 나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옳은 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녀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아직도 중요하다”고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지금은 매우 힘든 역사적 순간이다. 어느 때보다 위협이 고조된 시기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저는 희망적으로 본다. 민주주의는 처음보다 더 발전했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향상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찾아서 해보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젊은이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냥 생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며 “그것이 없었던 시기를 모르는 다음세대에게 어른들이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노력하고 피땀 흘리지 않으면 지금 가진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이라고 했다.

한편, 극동포럼은 우리 시대의 주요 명제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2003년부터 열리고 있다. 그 동안 김진표 국회의장(2회), 故 황장엽 선생(3회), 故 김영삼 전 대통령(12·14회), 정운찬 전 국무총리(22회), 이명박 전 대통령(4·39회), 마크 W. 리퍼트(40회)·해리 해리스(48회) 전 주한미국대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44~47·49회),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51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53회) 등이 감사로 나섰다. 김진영 기자

# 대한상의, 차기회장에 박용만 두산회장 추대

박용만(59)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현재 공식적인 회장 선출 문제를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두산 박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박 회장은 내달 12일 열리는 서울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회장에 선임될 예정이다.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박 회장은 내달 21일 대한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 회장으로도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대한·서울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과 위상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일할 대기업 오너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부나 기업 등과 두루 관계가 원만하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경제활성

화나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0명의 서울상의 부회장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박 회장과 함께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도 후보로 거론됐으나 70대인 김 회장이 자신은 고령이라 후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게 낫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이 부회장은 전했다. 두산그룹 고위 관계자는 “박 회장이 내일 상의에 회장직 수락 여부에 대한 확답을 줄 것”이라면서 “그간 회장직을 고사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던 만큼 수락하지 않을까 우리도 추측만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산그룹은 고 박두병 초대회장, 전문경영인인 정수창 전 회장, 박용성 전 회장에 이어 박용만 회장까지 4명의 상의 회장을 배출하게 됐다.

박 회장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으로 소비재 중심이던 두산그룹을

중공업 기반의 첨단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평소 적극적인 상의 활동으로 재계와 산업계 신망이 두터워 서울상의 부회장들 가운데서도 유력한 회장 후보로 거론됐다. 박 회장은 2015년 3월까지 중도 사퇴한 손경식 전 회장의 잔여임기 1년7개월가량을 채우게 된다. 현행 규정상 서울상의와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6년의 임기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 전 회장은 2005년 11월 회장직을 맡아 8년 가까이 재임하다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뒤 CJ



©구글링

룹의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지난 9일 물러났다.

김종업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부터 시작

\*단, 컬러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

**윤석열대통령 매년 7월14일 국가기념일로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 “난 반역자 아들이었어요”

“저는 북한 정권은 싫어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좋아해요. 북한 정권이 나쁜 것이지 북한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북한을 떠나겠다는 생각이 쉽게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문제로 제가 가장 천대를 받는 적대 그룹에 속해 있었고, 남들 다 가는 군대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전혀 희망이 없어 탈북을 결심했죠.”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맞아서 죽는 거예요. 북한 감옥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장 무서웠어요. 영국에 왔을 때도 그 소리가 한동안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말이 안 통하고 친구도 없었지만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좀 더 빨리 적응했을 것 같아요.”

– 강사 : 탈북민 티모시 조 (Timothy Cho) –

- 영국 맨체스터 거주
- UK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사무국장
- University of Liverpool에서 MA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전공



## 탈북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선환/기부자 일동)

**일 시 | 2024년 7월 12일 (금) 오후 3시**  
**장 소 | 가든 스위트 호텔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참가비 | \$40 (저녁식사제공)**  
**문의 | (310)404-6219 (김영구 목사)**

**주관단체 :** NKIA 탈북민 선교회(김영구) / 탈북민자녀 장학위원회(조선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이용태) / 통일교육위원회 L.A(이순희) / 미주북한인권통일연대

**협력단체 :** AKUS 한미연합회 L.A(김영구) / AKUS 한미연합회 South West(문상귀)  
 AKUS 한미연합회 State of Missouri(손인식) / AKUS 한미연합회 Tucson, Arizona (서덕자)  
 AKUS 한미연합회 Phoenix, Arizona (박태영) / ONE KOREA재단(류재풍) / 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L.A(이재권)  
 건국대통령이승만기념사업회 L.A(최학량) /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김순희) / 미주국군 포로 송환위원회  
 CBS-TV기독교방송(한기형) / 미주3.1 여성동지회(캐롤리) / 미주여성코랄(오성애)  
 월드웨어 U.S.A (강태광)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변무성)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전동석)  
 남가주육군동지회(최만규) / 6.25 참전용사회(이재학) / 미주기독교일보(이인규) / 맥아더 장군 기념사업회(김희창)

**공동주최 :** AKUS 한미연합회 총본부(김영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O.C/S.D(설증혁)